

광주과학기원 하반기 학위수여식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선우중호)은 18일 오후 오룡관 대강당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외국인 졸업생 13명을 포함해 석사 72명, 박사 28명 등 총 10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직업현장 체험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연) 소속 초등학생 40여명은 지난 17일 기아지동치광주공장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방문해 직업현장을 체험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행사를 실시했다. (북구청소년수련관 제공)

“롤러코스터 4000번 탔어요”

미국 클레멘씨



미국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미플린에서 78 살인 빅 클레멘이 케니 우드의 책 '래빗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통산 4000번째 탑승 기록을 수립했다고 18일 외신' 들이 전했다. 클레멘은 이날 하루만 90번을 타면서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 1959년부터 정기적으로 이 놀이공원을 찾아 롤러코스터를 20번씩 타기 시작한 클레멘은 이날 탑승 횟수를 합쳐 지금까지 4000번 가량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의 이색 기록에 놀이공원 측에서는 그를 위한 인증서를 제작, 전달했다.

미국 롤러코스터 애호가 단체의 일원인 클레멘은 "기분이 좋다"며 "기록을 세우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연합뉴스

개그맨 이휘재 8살 연하 플로리스트와 결혼



개그맨 이휘재(38)가 오는 12월 8살 연하의 플로리스트(꽃 장식가)와 결혼한다.

18일 소속사에 따르면 결혼식은 12월 5일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이휘재는 1년 전 친지인 소개로 예비 신부와 만나 교제를 해왔으며 지난 3월 자신이 진행하는 MBC '세바퀴'를 통해 연애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신부는 상당한 미묘의 소유자로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이라며 "현재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회복

▲김영희 쌍남 대석(사법연수 원생)군 김태영(란체스터 원장)·최명자씨 장녀 명륜(서울 방배초 교사)양=21일(토)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파이어홀)

동창·동문회

▲수도방위사령부(수경사) 제30 경비단, 제1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임 및 모집=21일(토) 오후 6시30분 광주 상무지구 동해해물탕. 062-373-9218, 010-2274-6400(기우성 임시회장).

종친회

▲가락광산구 종친회(회장 김종호) 월례회=20일(금) 오전 11시 종

'대만현대미술전' 준비 광주 온 황차이 랑 국립대만미술관장

“비엔날레 도시 광주와 문화교류 의미 크다”

대만의 역사·전통·신화 재해석 작가 작품 20여점 전시

"대만 작가들을 광주에 소개할 수 있어 영광이며, 양국의 예술가들이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만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어·복화술-대만현대미술전'(19일 ~ 10월 3일·광주시립미술관) 준비를 위해 18일 광주를 찾은 국립대만미술관 황차이랑(黃才郎) 관장은 전시회를 통한 국가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족의 전통이 담겨있는 예술 작품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는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과 국립대만미

술관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한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교류전을 열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만미술관에서 광주 작가들을 소개했고,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대만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회는 단순히 작품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 폭넓은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만과 광주의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의 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황차이랑 관장은 이를 위해 이번 전시에는 대만의 역사와 전통, 신화, 지리적인 요소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들의 작품만을 모았다.

가장 대만적인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다.

"예술은 한 지역에만 머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전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미적 담론을 주고 받아야 새로운 예술이 탄생합니다. 광주의 작가들을 대만에 소개할 수 있도록 광주시립미술관과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대만의 대표 작가인 귀전(郭振昌)·평홍즈(彭弘智)·장야오황(張耀煌)·리쥔양(李俊陽)·우지종·황세계(黃世傑)·천이춘(陳依純)·화지엔치앙(華建強) 등 8 명이 참여해 회화, 영상, 설치 등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고속, 어린이 초청 '과학체험전' 관람



금호고속(사장 김성선)은 18일 두동육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30여명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명화속 과학체험전'에 초청, 전시를 관람했다. (사진)

금호고속은 오는 29일

까지 서구 방파후아카데미, 나주 방파후아카데미, 광주성빈여사, 신애원 등에서 생활하는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전시회에 초청할 예정이다. 또 단체 관람을 할 경우 금호고속은 유스퀘어문화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60-8431.

금호고속은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문화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전시회 관람 기회를 제공해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관람을 원하는 복지시설은 유스퀘어문화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60-8431.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문화 세계화 위해 다산 대표작 10년 번역”



친 번역작업 등을 거쳐 출간했다.

다산의 대표적 저서인 '독민심서'가 영어로 번역된 것은 처음이다.

애초 1100여쪽

이었으나 독자 편의를 위해 300여쪽으로 줄였으며 다산의 아민사상과 개혁정신 등을 그대로 담았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최 교수는 서애 유성동이 쓴 '징비록'과 '우리의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한영우 저) 등을 영역, 출간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독민심서 영문판 발간

호남대 최병현 교수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고전의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의 고전인 '독민심서'를 번역하게 됐습니다.”

호남대 영문학과 최병현 교수는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독민심서(캘리포니아 대폐념)' 영문판을 펴냈다.

1980년 국역 출간된 '독민심서(창작과 비평사 폐념)', 다산 산문선(박석무 저) 등 모두 6권을 중심으로 10년에 걸

친 번역작업 등을

거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해당국가로

급파되어, 내년 9월 'UN 국제구조대 등급분류(IEC) 평가'에 대비하는 종합훈련에도 참여하게 된다.

박 소방교는 “국제 구조활동에 필요 한 기술을 연마해 대한민국 구조대 명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소방교는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 2003년 소방관에 임용된 이후 투철한 소방의식과 현장 구조활동으로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12회나 표창을 받았고, 2009년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바 있다. 구조대원 중 유일한 '하트세이버' 이기도 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동부소방서 박형주 소방교

광주 첫 '119국제구조대원' 됐다



광주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박형주(36) 소방교가 광주 최초로 '119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됐다.

박 소방교는 지난달 21~22일 중앙 119구조대에서 열린 16개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119국제구조대 인력풀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52명에 광주 소방대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국제구조대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전문가

들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7년 '중앙 119구조대' 내 국제구조대를 발족한 이래 터키·대만·이란·알제리·중국·아이티의 자진과 태국의 지진과 해양 등으로부터 12회나 표창을 받았고, 2009년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바 있다. 구조대원 중 유일한 '하트세이버' 이기도 하다.



초등생·주부 수돗물 현장체험

광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60여명과 주부 15명은 17~18일 광주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덕남정수장을 방문, 체험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현미경 관찰 등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수돗물을 기장 많아 이용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수돗물 생산과 검사과정을 통해 수돗물 바로알기 등에 대해 교육을 했다. (광주시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회복

▲김영희 쌍남 대석(사법연수 원생)군 김태영(란체스터 원장)·최명자씨 장녀 명륜(서울 방배초 교사)양=21일(토)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파이어홀)

동창·동문회

▲수도방위사령부(수경사) 제30 경비단, 제1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임 및 모집=21일(토) 오후 6시30분 광주 상무지구 동해해물탕. 062-373-9218, 010-2274-6400(기우성 임시회장).

종친회

▲가락광산구 종친회(회장 김종호) 월례회=20일(금) 오전 11시 종

알림

▲광주 풍수지리 시민 무료 공개강좌=28일(토) 오후 2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본관 1층, 풍수지리 천년의 히와 실·영상강의의 토의·힐토·명당지도 등 강의. 011-629-7240.

▲광주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좌=21일(토) 오후 2~5시 광주 대 호남대 쌍촌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로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책자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꾸준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립약국 탑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친회관 2층 대회의실. 062-944-1951.

모집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축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센터=광주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좌=28일(토) 오후 2시 호남대 쌍촌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로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책자무료제공). 011-629-7240.

▲탁주·악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법 수강생 모집=조선대 평생 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문의 조선대(062-230-7700), 호남대(062-370-8211).

▲클라리넷·색소폰 회원 모집=30일(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8시 광주동구문화센

화족

알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축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